제 9 강 정신분석과 자본주의 1

◆ 억제의 수단으로서의 자본주의 공리

※ 학습목표
자본주의 공리가 <기관 없는 신체>의 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욕망생산과 사회적 생산의 극한

모든 사회체 속에는 <기관 없는 신체>를 모델로 하는 "욕망하는 죽음 la mort qui désire"(483)이 잠재해 있습니다. <기관 없는 신체>는 모든 사회체의 잠재적 극한입니다. 사회체가 <기관 없는 신체>로 되는 상황은 사회적 생산이 욕망생산과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생산의 본성이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탈영토화되고 탈코드화된 분열증적 흐름의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체는 이런 분열증적 욕망을 억압하는 각각의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원시사회는 분열증적 흐름을 대지라는 충만한 신체 위에 등록시키는 코드들로 구성된 사회체입니다. 전제군주사회는 원시사회의 코드를 해체, 재편하여 욕망의 흐름을 전제군주의 초월적 신체로 빨아들이는 초코드화를 통해 분열증적 욕망을 억압합니다. 이 두 사회체가 탈코드화하고 탈영토화하는 욕망의 흐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는 분열증적 흐름 위에 세워진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코드와 초월적 코드에 갇힌 욕망이 해방된 지점에서 출현했으며 특정한 영토로부터 벗어나는 욕망의 흐름을 생산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자본주의는 분열증적 욕망 위에 탄생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사회적 생산과 분열증 욕망생산과 일치시킨 유일한 사회이며 <기관 없는 신체>라는 모든 사회체의 극한에서 출현한 사회입니다. 분명, 자본주의의 사회적 생산은 욕망생산의 본성(분열증)과 일치하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체제는 욕망생산의 체제와 가장 거리가 먼 사회입니다. 원시사회나 전제군주 사회는 욕망생산의 본성을 억압하지만 사회적 생산체제를 욕망생산의 체제와 일치시킵니다. 대지에 대한 욕망, 전제군주에 대한 욕망이 그 사회의 경제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욕망을 사회로부터 분리된 가족에 투여시키면서 사회적 생산체제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 리비도 경제학과 정치경제학

정신분석은 표상으로부터 벗어난 욕망 자체의 양적 생산에 대한 탐구에서 출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탈영토화되고 탈코드화된 욕망의 양적 생산을 프로이트는 리비도 경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과 상동적입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 경제학은 '절약'(economy)의 경제학입니다. 리비도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며 자아의 욕망생산(쾌락)은 이 제한된 양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항상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향적 법칙을 갖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것이 리비도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 경제학은 소자본가의 경제학입니다. 한정된 리비도(자본)를 가지고 최대한의 만족(이윤)을 얻기 위해 절약의 원리에 따라 투자하는 심리적 자본가가 '자아'입니다.

▲ 자본의 충동과 죽음본능

그러나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프로이트는 리비도 경제학의 파탄을 목격합니다. 자아의 리비도 투자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쾌락원칙 너머'의 현실에서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면목을 발견합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잉여가치의 무한 생산체제입니다. 잉여가치는 소자본가의 생활비(생명의 욕구 충족비용)가 아니라 '새끼 낳는 돈'으로서의 자본이 지닌 본성으로부터 생성됩니다. 더 많은 자식(잉여가치)을 낳으려는 자본의 욕망은 개체 보존의 욕구나 개체 생식의 욕구 차원을 넘어선 무조건적 충동입니다. 때때로 그 자본의 충동은 생명의 욕구나 합리적 투자원칙을 넘어서 죽음과 파괴 - 공황, 세계대전, 잉여생산물의 파괴적 소비 - 로까지 치닫습니다. 프로이트가 죽음충동이라고 본 것은 자본의 무조건적 충동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문명 속에 내재한 죽음충동의 작인으로 지목한 초자아의 현실적 대응물은 실은 '자본'이었습니다. 초자아의 고고학적 대응물이 '국가'라면 초자아의 현실적 대응물은 자본입니다.

▲ 자본의 이중구속과 공리계

그러나 국가의 이중구속과 자본의 이중구속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의 이중구속은 초월적이지만 자본의 이중구속은 내재적입니다. 국가는 욕망의 흐름을 전제군주라는 초월적 일자의 신체로 빨아들임으로써, 즉 초코드화함으로써 배제된 욕망과 현실적으로 가능한(억제된) 욕망을 배타택일적으로 이접시킵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욕망의 흐름을 자본이라는 그 자체로 생산에 내재하는 신체에 등록시켜 탈코드화시키는 동시에 추상적으로 작동하는 공리들로 욕망을 억압합니다. 자본주의는 분열증적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따로 어떤 코드나 초월적 상징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욕망의 흐름을 자본의 탈코드화하고 탈영토화하는 생산 법칙, 즉 자본의 내재적 공리계(axiomatique)에 종속시킴으로써 억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욕망의 '해방'이 동시에 욕망의 '구속'이 될까요?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체의 잠재적 극한인 탈영토화되고 탈코드화된 흐름 위에 세워진 사회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욕망생산의 절대적 탈영토화와 탈코드화의 문턱(seuil)을 결코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체는 <기관 없는 신체>로 넘어가기 직전의 극한(limit)에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욕망의 흐름을 탈영토화, 탈코드화하면서도 <기관 없는 신체>로의 문턱을 넘지 않게 하는 억제의 수단이 자본주의 공리입니다. 공리란 논리학에서 '무증명 명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증명을 요하지 않는 '자명한 이치'를 의미합니다.

▲ 코드의 잉여가치

들뢰즈-가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공리에 입각한 사회라고 부른 이유는 공리와 코드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코드란 "흐름들의 성질 하나하나를 규정하는 것"(367)입니다. 코드는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재생산함으로써 흐름에 질적 특질을 부여합니다. 가령, 유전코드는 특질적인 단백질과 세포와 유전형질을 생산합니다. 원시사회의 코드들은 재화의 흐름에 소비재 biens de consommation 의 순환과 위신재 bien de prestige 의 순환이라는 특질을 부여하며, 아이와 여자의 흐름에 친족과 결연의 특질을 부여합니다. 상이한 특질들을 갖는 이 코드화된 흐름들이 접속할 때 코드의 잉여가치가 발생합니다.

◆ 코드의 잉여가치, 교환과 화폐

※ 학습목표

코드의 잉여가치, 교환과 화폐를 이해한다

▲ 코드의 잉여가치

족장의 소비재와 부족민의 위신재는 교환된 것이 아닙니다. 교환은 교환되는 재화들 사이의 어떤 양적 동일성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질적 차이가 고집스럽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을 회피하기 위해 원시사회에서는 재화를 증여하면서 부채를 지웁니다. 그 부채 때문에 코드화된 흐름의 접속이 일어날 때마다 잉여가 발생합니다. 족장의 소비재 증여는 부족민에게 위신재 증여의 부채를 남기고 부족민의 위신재 증여는 족장에게 소비재 증여의 부채를 남기는 식입니다. 이 부채의 잉여는 족장이 재화를 축적(stock)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의 위신 하에 부족이 단일화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부채의 잉여가치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징벌하는 방법에서도 발견됩니다. 우선 족장이나 원로들이 범인의 소유물(말이나 텐트)을 파괴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에게 범인에 대한 부채를 지웁니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재화를 증여받아 범인에게 말과 텐트를 증여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는 공동체에 진 부채를 갚기 위해 공동체에 필요한 활동이나 재화를 증여합니다. 이렇게 하여 "요소들의 질적 차이가 불균형을 상쇄시키는"(367) 잉여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제군주제나 봉건제의 잉여가치 역시 코드의 잉여가치입니다. 농민이 군주나 영주의 땅에 노역을 제공할 때 "거기서 잉여가치 형태로서의 잉여노동 surtravail 은 노동의 흐름과는 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흐름을 구성"합니다. 그들의 잉여노동은 '생존'을 보장받는 대가로 지불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동과는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코드의 관계는 경제외적인 것이요, 이런 자격으로 질이 다른 흐름들을 결합시켜 주는 것이다."(368)

▲ 교환과 화폐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흐름의 공리화(axiomatisation)를 통해 유지됩니다. 흐름의 코드화가 흐름의 질적

속성을 규정한다면 흐름의 공리화는 흐름의 질적 본성을 제거하고 추상적으로 양화된 흐름을 만듭니다. '공리'란 단어가 수학에서 나온 것은 추상적으로 양화된 세계에서만 '자명한 이치'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의 사용이 항상 특정한 영토(언어적 영토, 장르적 영토, 계층적, 시간적, 관습적 영토)에 제한되는 것과 달리 공리는 영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됩니다. 공리는 탈영토적이며 코스모폴리탄적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화폐의 공리계에 의해 이뤄집니다. 화폐의 흐름, 즉 "통화는 흐름들의 질적 본성과는 무관한 추상량을 재현représente"(369)합니다. 화폐의 흐름이 재현하는 것은 생산물의 양적 가치입니다. 생산물은 질적으로 상이한 생산활동에 의해 산출된, 질적으로 상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드의 정의에 따라 이런 질적 가치를 '코드적 가치'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폐가 이런 코드적 가치와 무관한 추상량을 재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코드화된 흐름과는 무관한 양화된 흐름을 전제합니다. 생산물의 양화된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교환입니다. 원시사회가 교환을 꺼린 것은 교환이 생산물의 코드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면서 공동체의 코드를 파괴하는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 1장에서 상품의 가치형태가 화폐형태로 발전되는 논리적 과정을 추적합니다. 최초의 "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속에서 하나의 생산물은 다른 생산물의 가치를 표현하는 등가형태가 됩니다.(한 벌의 베가 두 되의 쌀과 교환될 때 두 되의 쌀은 한 되의 쌀이 지닌 교환가치를 표현한다.) 그 다음 "전체적, 또는 확장된 가치형태" 속에서 하나의 상품에 내재하는 교환가치는 여러 개의 등가형태로 표현됩니다.(한 벌의 베가 두 되의 쌀, 세 되의 조, 한 나절의 밭매기와 교환될 때 두 되의 쌀과 세 되의 조, 한 나절의 밭매기는 한 벌의 베가 지닌 교환의 가치를 표현한다.) 아직까지 교환은 우연적이고, 생산물의 교환가치는 다른 생산물들(등가형태)과의 교환이 실제로 행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벌의 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베가 지닌 교환가치를 알기 위해 매번 다른 생산물의 소유자와 만나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교환'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류되는 생산물의 가치는 질적인 가치이지 아직 양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 생산자와 쌀 생산자가 만나 한 벌의 베와 두 되의 쌀을 맞바꿀 때 베 '한 벌'과 쌀 '두 되'가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소용된 노동 시간의 동일성이 아니라, 자신이 갖지 않은 재화에 대한 합치된 필요(욕구)의 크기입니다.
세 번째 "일반적 가치형태"의 출현에 의해 사태는 일변합니다. 왼쪽에 있던 하나의 생산물(쌀 한 되)이 오른쪽 '등가형태'의 자리에 가고 오른쪽에 있던 생산물들이 왼쪽에 죽 늘어서는 다 대 일의 함수관계가 수립됨으로써 모든 생산물은 하나의 생산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이때 오른쪽에 위치한 생산물은 '일반적 등가물'로서 다른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모든 생산물은 이 일반적 척도에 의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상품과 일반적 등가관계를 형성하는 단일한 상품이 출현함으로써만 생산물들은 자신의 질적 차이를 망각하고 일반적 등가물이 대표-표상하는 représenter 추상적 동일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 화폐체제와 군주체제

※ 학습목표
화폐체제와 군주체제를 이해한다

▲ 교환과 화폐
마지막 "화폐 형태"는 이와 같은 양적 비교의 척도로 기능하기 좋은 '금'이 일반적 등가물의 자리에 오는 형태입니다. "일반적 형태"가 "화폐형태"로 전환됨으로써 금은 일반적 등가물이 지닌 특수성을 벗어버립니다. 일반적 등가물의 자리에 오는 상품은 다른 상품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특수한 상품이지만 화폐로 기능하는 상품은 자신의 출신 성분과 질적 특성을 상실하고 대신 다른 상품의 교환가치를 재현하는 추상 기계로서만 기능합니다. 그로 인해 화폐로 기능하는 상품은 상품 교환의 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초월적 매개자의 자리에 놓입니다. 이 배제된 일자를 매개로 하여 생산물들은 총체적 상품교환의 체계에 들어옵니다. 앞에서 우리는 초월적 일자를 매개로 형성되는 단일한 코드체계를 초코드화라고 했습니다. 화폐는 생산물들의 질적 흐름을 초코드화 하여 상품교환체제로 만듭니다.

▲ 화폐체제와 군주체제

화폐는 상품왕국의 군주입니다. 모든 생산물의 질적 흐름은 화폐를 통과하는 순간 양화됩니다. 화폐는 모든 생산물을 자신의 충만한 신체에 등록된 신민(상품)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로 인해 화폐는 모든 상품의 존재 원인이자 신분 증명이 됩니다. 상품왕국에서 화폐는 전능한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모든 상품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신비한 화현(化現) 능력을 지닙니다. 신과 군주의 권능이 신민들의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처럼 화폐의 권능은 화폐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화폐체제는 신앙 공동체나 전제군주체제와 일치합니다. 자본주의는 화폐 체제를 자신의 공리로 삼았지만 화폐 체제가 자본주의를 발생시킨 것은 아닙니다. 화폐체제는 원시사회를 탈코드화 하는 전제군주체제의 초코드화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전제군주체제에서는 단지 상대적으로만 사용되던 화폐체제를 일반적 공리로 확장하여 자본이라는 새로운 신체에 등록시킨 것입니다.

슬라보예 지젝은 화폐체제가 전제군주체제의 초코드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라캉의 기표논리로 증명합니다. 라캉의 기표논리는 "하나의 기표, 그것은 다른 기표를 대신해서 주체를 재현한다"[1]는 명제로 정식화됩니다. 지젝은 이 기표 정의가 "어떤 때는 하나의 기표가 '다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주체를 표상하고, 어떤 때는 단수로 '다른 기표'를 대신해서 주체를 표상한다"[2]로 나타나는 것을 마르크스의 가치형태 분석으로 설명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의 기표는 다른 기표를 대신해서 주체를 표상한다"는 단순 형태는 "어떤 하나의 기표를 대신한 다른 어떤 기표들도 주체를 표상할 수 있다"는 확장된 형태로 전개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논리적 전도를 통해 "하나의 기표는 다른 모든 기표들을 대신해서 주체를 표상한다"는 일반적 형태로, 다시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모든 기표가 주체를 표상하는 하나 기표"라는 화폐형태로 발전됩니다.[3] 이 화폐 형태의 기표가 누빔점의 기표, 즉 주인-기표입니다. 이 주인-기표는 화폐가 그런 것처럼 질적 의미(상품의 질적 가치)가 텅비어 있는 기표, 기표의 추상성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닌 추상성) 자체를 재현하는 기표입니다. 자신의 '의미 없음'으로써 '주체'의 텅빔(분열성)을 재현하는 이 전제군주-기표를 초월적 준거점으로 하여 무의식의 기표 연쇄가 수립됩니다.

▲ 정신분석가는 왜 돈을 받는가

정신분석가는 이 주인-기표를 통해 환자의 무의식적 기표 연쇄를 누빔으로써 그에게 의미를 줍니다. 하지만 분석가가 준 은유-기표는 의미로 충만한 기표가 아니라 텅빈 기표,'무의미'를 재현하는 기표입니다. 텅빈 기표를 줌으로써 환자의 무의미한 의미탐사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정신분석가는 환자에게 돈을 받습니다. 만약 환자가 내는 돈이 분석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면, 다시 말해서 분석 상품과 화폐가 교환된 것이라면 상황은 우스워집니다."꿈 하나 해석하는 데 얼마, 증상 하나 해소하는 데 얼마...해석 두 번에 한번은 공짜..." 이렇게 되면 분석은 진행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환자는 분석가에게 돈을 내는가?"(『그들은...』, 47) 지젝은 이 질문의 답은 질문 자체에 있다고 합니다. 즉 환자 자신이 왜 자신은 분석가에게 돈을 내는 거지? 라며 질문을 주체화할 때 분석가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지젝은 이렇게 환자가 "자신의 지불을 주체화" 하는 지점에서 "교환의 논리는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지불을 주체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금이 그에게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금 지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자를 분석할 수 없다"(『그들은...』, 49) 그러나 그 요금은 부담이 되는 동시에 무의미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아무 것도 아닌 것에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환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순수한 은총의 잉여로 나타날 욕망의 원인, 대상 a 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절약의 악순환은 이중적으로 파괴된다. 환자는 자본주의적 소비/축적의 논리적 지평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짓을 하고서도 교환관계 속의 순수한 잉여를 얻게 된다"(『그들은....』, 49) 이런 설명은 그가 불충분하다고 했던 "표준적인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분석가가 환자에게 돈을 받는 이유는 "분석가가 리비도적 순환 회로 바깥에 머물러 있기 위해, 정념의 분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그들은...』, 47)라고 합니다.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전이감정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환자가 분석가에게 투여하는 리비도적 관계를 차단하고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비-사회적("정념적") 기표 연쇄를 사회적 기표 연쇄, 즉 화폐 관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환자를 사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젝은 사회적 기표 연쇄로서의 화폐체제가 마치 '절약의 논리'와 '합리적 등가교환'의 논리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짓을 하고...잉여를 얻는" 환자-분석가 사이의 화폐 교환이 마치 반자본주의적 교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치형태와 라캉의 기표논리를 비교하면서 지젝 자신이 말한 것처럼 화폐는 주인-기표가 그런 것처럼 텅빈 가치(주체)를 재현하면서 욕망의 흐름을 흡수합니다. 즉 지젝 자신의 말로 하면 화폐는 "무의미"를 재현하기 때문에 욕망의 흐름에 "잉여"를 발생시킵니다. 뒤집어 말하면, 화폐체제 속에서 주체는 "무의미한 짓을 하고서도 교환관계 속에서

순수한 잉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미한 짓에 요금을 지불하고서도 사회적 교환관계로부터 순수한 잉여를 얻습니다. 차가 밀려 대부분의 시간을 길거리에 낭비하고 하나도 즐겁지 않은 놀이동산에 비싼 요금을 지불한 가족은 자기가 안락한 부르주아 가족 체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 확인으로부터 잉여쾌락을 얻습니다. 매번 알면서도 놀이동산에 무가치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놀이동산이 주는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의 확인입니다. 화폐체제가 그 신민에게 주는 잉여가치는 코드화된 욕망에서 발생하는 잉여쾌락이지 합리적 소비활동의 사용가치가 아닙니다.

---

1) Jacques Lacan, crit, Seuil, 1966, subversion du sujet et dialectique du dsir, 819
2)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172 쪽.
3)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171-179 쪽.